

東友

【社是】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함
민주주의를 지지함
문화주의를 제창함

2016년 7월 28일 목요일
제200호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 권해정(동아PDS)
- 김민지(동아E&D)
- 김석호(마케팅본부)
- 김영환(AD본부)
- 김종석(채널A 보도본부)
- 구희연(출판국)
- 박형순(동아에드넷)
- 빈정훈(동아MD)
- 안재혁(재경국)
- 양형모(스포츠동아)
- 유성열(편집국)
- 이정아(동아사이언스)
- 이종원(문화사업본부)
- 이태윤(동아이지에듀)
- 정기상(동아닷컴)
- 정소림(경영지원국)
- 조현상(동아프린테크)
- 최한나(미래전략연구소)

(가나다순)

제작 : 경영총괄팀(구내 0635)

더 멀리 뛰기 위한 휴식 즐기세요.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이번 호는 폭폭 짜는 여름철을 맞아 휴가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휴가지에서 사우들의 미각을 즐겁게 할 착한 식당, 한 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채널A '몸신'들이 추천하는 건강 관리법도 꼭 챙기세요. 뜨거운 여름보다 더 열정적인 젊은 사우들의 활약상도 담았습니다. 잘 노는 사람이 창의적이고 성공한다고 하네요. 꼭 쉬고 돌아온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과 의욕이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東亞日報

서울 중로구 청계천로 1 동아일보사

신나는 여름휴가 맛있게 보내세요

먹거리X파일이 추천하는 '휴가지 착한식당'

모처럼 떠난 휴가, 맛집이라고 찾아간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처럼 속상한 일은 없죠. 식도락은 이제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먹거리X파일'팀이 서해와 동해, 제주도에 있는 '착한 식당'을 추천합니다. 채널A의 착한 식당에서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세요. 제작본부 제작2팀 배현수PD

마니산 산채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182
☎ 032-937-4293

식당 앞뒤엔 직접 만든 효소, 각종 장류들이 든 장독들이 늘어서 있다. 약간의 조미료를 쓴다는 이유로 아쉽게 '준착한식당'으로 선정된 이곳은 100% 국내산 산나물로 만든 산채 비빔밥이 주 메뉴다. 효소로 양념한 밀반찬은 덤. 산채비빔밥은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하다.

거시기 삼계탕

전북 군산시 성산면 동군산로 275
☎ 063-453-4911

자연방사 무항생제 토종닭 삼계탕을 파는 곳으로 살이 아들아들한 영계만 고집한다. 치즈처럼 늘어난 닭고기와 종파나무만을 사용한 맑은 국물은 단연 일품. 이 '착한식당'은 주문 즉시 닭을 잡아 조리하기 때문에 예약 없이 가면 한 시간은 기다려야 한다.

토담골

전남 무안군 무안읍 동문안길 37
☎ 061-454-7733

무안으로 여행 간다면 꼭 먹고 와야 할 곳이다. '착한식당'으로 선정된 이곳은 신선한 한우만 골라 깎물을 말끔히 빼고 정성 들여 국물을 우려낸다. 사골농축액을 사용하지 않은 국물은 뽀얗지 않고 투명하다. 소금 간만으로도 깊고 진한 맛이 난다.

섬지코지 해녀밥상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로122번길 58
☎ 064-782-4705

제주도 해녀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맛 볼 수 있는 곳. 전복, 소라, 성게, 해삼, 문어, 멍게, 성게국 등의 싱싱한 해산물이 한상 가득 차려지는데 특히 성게 미역국이 예술품이다. 먹어보면 1인분에 3만원 이란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 예약은 필수!

양반덕 함흥냉면(함흥냉면)
강원 속초시 청초호반로 302
033-636-9999

삼군리 메밀촌(메밀국수)
강원 횡성군 공근면 금계동로 491
033-342-3872

사계진미(콩국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453
031-707-5868

헬바라기 부대찌개(부대찌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30
031-388-4525

황해도전통손만두국(만두국)
충남 공주시 우금티로 744
041-855-4687

육천휴게소 서울방향(한방 닭곰탕)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2 42-34
043-731-8096

합천자연산추어탕(추어탕)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로1길 36-3
053-635-8639

덕인관(떡갈비)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 1121
061-381-7881

타오(피자)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27
062-955-2215

어촌상생해물탕(해물탕)
경남 통영시 도천상가안길 18 동원나폴리빌
055-646-1982

삼다도 해물집(전복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236번길 45-4
055-867-7562

울릉호랑약소플라자

경북 울릉군 울릉읍 신리길 48
☎ 054-791-1447

잃어버린 우리의 진짜 한우 울릉도 칠소. 슬로푸드 국제본부가 잊혀져 가는 맛을 보존하고자 '맛의 방주'에 등재시킨 식품이다. 일반 한우보다 가격은 좀 비싸지만 기름기가 적어 담백하고 고기 자체의 찰기가 좋아 끈득한 맛이 일품이다.

전촌 할매횃집

경북 경주시 감포읍 동해안로 2044
☎ 054-744-3411

투박한 양분에 철마다 잡히는 선어회와 몇 가지 채소를 담아내는데, 재료에 쏟는 정성이 대단하다. 국산 쌀과 누룩으로 빚은 막걸리, 직접 만든 막걸리 식초. 여기에 직접 담근 고추장으로 만든 초고추장까지. 꼭 소개하고 싶은 곳이다.

효산 유향오리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373번나길 42
☎ 051-972-5279

전국에서 진짜 유향을 먹어 제대로 키운 유향오리를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2년간 키운 유향오리에 여러 약재를 더해 꼭 삶아낸 백숙은 그 자체로 보약이 되는 느낌이다. 부모님 모시고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다. 예약 필수.

오는정 김밥

제주 서귀포시 동문동로2
☎ 064-762-8927

"김밥이 뭐 거기서 거기지", "예약까지 해야 해?" 불신 가득한 마음으로 먹어봤다. 아... 그런데 맛을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재료 하나 하나의 맛이 살아있고 식감 또한 훌륭했다. 제주에 가면 꼭 맛보길 바란다. 혹시 지금 "김밥이 맛있어봐야..."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착한 튀김

제주 제주시 진남로6길 20
☎ 064-723-3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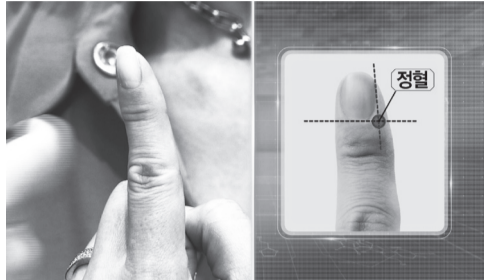
19호 착한식당 '요요미' 튀김집에서 기술을 전수받았다. 깨끗한 기름을 사용해 족석에서 튀겨내기 때문에 바삭함이 살아있다. 특히 다리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새우튀김은 엄지척! 튀김을 날개로도 구매 가능하지만 세트가 경제적이다.

따라서 해봐요~ 몸신들의 피서지 건강관리법 3가지

① 장시간 운전으로 뻣뻣해진 목·어깨엔 '간단 지압'

혈액순환 팡팡 지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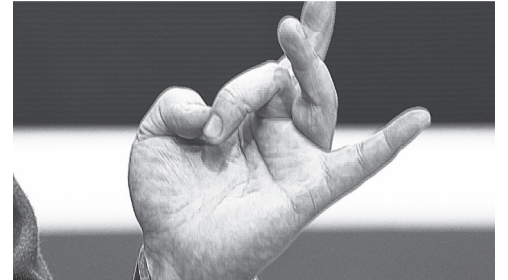
휴가철 꼭 막힌 도로에 갇혀 움푹달짝 못한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운전 중 졸음이 오거나 뒷목이 뻣뻣해질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지압법을 소개한다. 채널A 건강 예능 프로그램 '나는 몸신이다' 52회 방송에 출연한 한진우 한의사는 손가락 모세혈관 지압법을 추천한다. 손에는 말초신경이나 모세혈관의 70%가 몰려있어 손 지압을 통해 우리 몸의 각 장부와 연결된 경혈점들을 자극하면 손에 피가 잘 통하게 되고 몸 전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① 우리 몸의 각 장부와 연결된 손가락 경혈점. 여기를 자극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② 엄지와 가까운 쪽 검지 손톱 가장자리 가운데 손톱이 끝나는 곳 쪽 지점 부분을 엄지로 3초 동안 3번씩 지그시 누른다.



③ 중지 손톱 옆 같은 위치를 똑같이 3초 간 지그시 눌러준다. 양손의 나머지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눌러준다.

30초 귀 지압법

53회 '몸신' 출연자 유정환 씨는 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 몸 면적의 1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귀를 자극하면 목, 어깨, 무릎, 척추 부위의 통증부터 다리걸이 교정에 두통, 소화불량까지 해결할 수 있다. 매일 꾸준히 귀의 혈자리를 자극하고 마사지해주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귀에서 어깨와 목에 해당하는 혈자리를 잘 찾아서 꼭꼭 눌러주면 장시간 운전으로 지친 목과 어깨 답을 풀 수 있다.



① 귓바퀴 전방에 있는 구부러진 돌기(대이륜)는 우리 몸의 어깨와 연결되어 있어 대이륜을 자극하면 뭉친 어깨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② 손가락으로 대이륜 부위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살짝 밀듯이 눌러준다.



③ 손가락으로 대이륜 안쪽을 지긋이 누르며 지압한다. 엄지손가락으로 귀 안쪽을 꼭꼭 눌러주며 마사지하면 효과적이다.

② 햇볕 그을린 피부엔 수박껍질

수박껍질팩 만들기

23회 출연자인 김연옥 피부관리 전문가는 여름휴가 기간동안 장시간 야외활동을 할 경우 수박껍질을 활용해 피부 온도를 낮출 것을 조언한다. 수박껍질은 수분이 풍부해 햇볕에 달궈져 건조해진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여름철 피부관리의 필수 재료다. 특히 수박의 흰 껍질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 햇볕에 그을린 피부에 진정효과가 뛰어나다. 여름철 강

한 햇볕과 무더운 날씨에 지친 피부에 팩을 해주면 진정, 수분공급, 미백 효과를 볼 수 있다.

· 만드는 방법 ①수박 껍질의 흰 부분을 분리해서 강판에 갈아준다. ②수박껍질 즙에 시트지를 넣어 충분히 적신다. ③얼굴에 시트지를 밀착시킨다. ④10분이 지나면 시트지를 떼어내고 물로 잔여물을 씻어낸다. 시트지 대신 화장솜에 적셔 올려놓아도 좋다.

③ 모기 쫓을 땐 '천연기피제'

천연 모기기피제 만드는 법

야외 휴가지 최대의 적은 모기다. 화학살충제는 무리하게 쓸 경우 노약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몸신 77회에서 소개한 천연 모기 기피제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다. 모기 천연기피제 스프레이는 얼굴을 제외한 피부에 1-2회 직접 뿌리면 된다.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옷 안쪽에 뿌리고 흰 옷일 경우 얼룩이 질 수 있어 삼가는 게 좋다.

· 만드는 방법 ①에탄올(소독제 등)과 계피를 3대 7 비율로 섞은 뒤 2주간 숙성한다. ②100ml의 스프레이 용에 계피 숙성액을 부어 30%정도 채운다. ③시트 로넬라 오일 25방울+레몬그라스 오일 7방울+유칼립투스 오일 8방울을 넣는다(고농축 오일이므로 오일이 전체 양의 3-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함). ④나머지는 정제수로 채우고,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흔들어주면 완성.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신수영

금메달이 아닌 올림픽인들의 이야기

신문박물관 '노 골드전' 기사·사진 90여점 전시

동아일보 신문박물관(관장 김태령)이 7월 12일부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을 조명하는 신문기사·보도사진 전시회를 열고 있다.

'노 골드(NO GOLD):금메달이 아닌 올림픽인들의 이야기'란 제목의 전시회에는 1930년대부터 최근까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을 다룬 다양한 신문기사와 보도사진 90여 점이 전시돼 있다.

일제강점기와 건국 초기에는 올림픽 출전 자체가 큰 자랑이었다.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한국인으로서 첫 출전한 마라토너 김은배 선수는 6위를 차지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세계 올림픽 마라톤! 김은배 군 당당 입상'이라고 전했다. 1952년 헬싱키 올림픽 마라톤에서 4위를 한 최윤철 선수 등에게는 '그대들 잘 싸웠노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금메달만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권투 은메달을 딴 정신조 선수는 경기 직후 어머니와 통화에서 "최송합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라며 울었다. 당시 그는 한국 유일의 메달리스트였지만 언론들은 '분하다, 선전도 헛되어...' '패군지장' 등으로 보도했다.

메달 색깔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 자체를 응원하는 분위기는 1990년대 이후 조성됐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마라톤에서 은메달을 딴 이봉주 선수에게 당시 언론은 '아깝다... 그러나 잘했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담은 기사가 쏟아졌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정신조 선수가 권투에서 은메달을 딴 뒤 어머니와 통화하며 우는 모습이 담긴 동아일보 호외.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핸드볼 결승에게 아깝게 금메달을 놓친 여자핸드볼 대표팀에 대해선 '졌지만 아름다웠던 승부'란 찬사가 이어졌고, 역도에서 은메달을 딴 장미란 선수에겐 '눈물을 거두렴. 너의銀은 금만큼 아름다워'라며 위로하기도 했다.

9월 11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의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월요일 휴관). 입장료는 일반 3000원, 초·중·고·대학생 2000원. 동아미디어그룹 직원은 사원증 지참 시 무료다. 문의전화 02-2020-1880.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강은지

VR 크리에이터 챌린지 발대식 치열한 경쟁 뚫은 100팀 한자리에

채널A와 LG유플러스가 공동 주최하는 '2016 KOREA 360VR Creator 챌린지'의 발대식이 7월 12일 상암동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에서 열렸다.

선발된 100팀의 예비 전문가들은 이날 발대식에서 자신의 제작 계획을 다른 참가자들에게 설명하며 향후 5주간 뜨거운 열전을 다짐했다.

이번에 활동하는 100팀의 VR크리에이터들은 이력도 다양하다. 영상 제작 관련 학생 외에도 마술매니아 이하린, 뮤지컬 배우 오화라, 프로골퍼 김경은 등이 크리에이터로 지원·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분야는 다르지만 VR에

2016 KOREA 360VR CREATOR 챌린지

대한 관심과 열정은 영상 전공 학생들에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다.

100팀은 8월 12일까지 전국을 누비며 10편의 360도 VR 제작물을 만들어야 한다. 채널A와 LG유플러스는 촬영 장비(LG 360CAM)를 제공하고, 참가팀마다 멘토를 붙여 제작을 돕는다. 최종 제작물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상, 채널A상, LG유플러스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등 20여 개 부분 시상도 예정돼 있다.

경영전략실 디지털미디어팀 정동원



2016 KOREA 360VR Creator 챌린지 발대식에 참석한 100명의 VR크리에이터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중동에 처음 꽃은 동아일보 깃발...1년간 좋은 선례 남길 것”

첫 중동 단기특파원 조동주 기자 현지 적응기 언론통제 심한 이집트서 터키 쿠데타 출장 등 맹활약

“살려주세요!”

이집트 카이로로 부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아랍어 아니냐고 여러 선배들이 저에게 했던 농담입니다. 부임한 달여를 앞두고 이집트항공 여객기가 지중해로 추락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동주 특파원

방송 통제

이집트는 언론통제가 심한 국가라 방송 여건은 더욱 안 좋습니다. 야외에서 방송용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려면 ‘거리촬영허가증(street permit)’이라는 걸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지급하는 기자증과는 별도로 매달 갱신해야 합법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 스탠딩을 잡으려고 삼각대를 설치하려는 순간 경찰이 달려오고 거리촬영허가증이 없으면 바로 체포됩니다.

겨우여건

이집트에는 900명 정도의 한국 교민과 주재원이 있습니다. 이 중 90%가 카이로 동남부에 있는 ‘마디(maadi)’라는 지역에 삽니다. 저도 이 곳에 사무실 겸용 자택을 구했습니다.

제가 아직 차량이 없어 물건을 사갖고 오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장을 본 뒤 마트 앞에서 한국서 가져온 이민가방을 펼쳐두고 물건들을 꾸역꾸역 집어넣고 있으니 지나가는 이들로부터 ‘재는 뭐지?’라는 시선이 노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조동주 특파원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즐겨 먹는 집밥. 김이 유일한 반찬이다.



6월말 이집트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군부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이집트 국기를 흔들며 시위를 하고 있다. 조 기자는 ‘빔통’ 지하철을 타고 이 광장을 다녀왔다(좌).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피트로 때 색색의 하잡으로 멋을 낸 이집트 여성들이 카이로 이슬람 사원에서 ‘셀카봉’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혹시나 짐을 싸는 사이 물건을 훔쳐갈까 불안해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혼자 나와 있는 저로서는 한국에서 먹던 집밥이 가장 그립습니다. 외식 일정이 없으면 한국에서 가져온 밥술에 밥을 안치고 한국에서 싸온 김을 유일한 반찬 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 통조림이나 라면을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교통여건

이집트는 도로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왕복 8차선 도로를 그냥 손으로 차를 제지하면서 한 발짝씩 건넌다. 사고가 나도 ‘인살라’입니다. 자동차가 긁히거나 살짝 파이는 사고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각자 고칩니다.

카이로에도 전철이 3호선까지 있긴 합니다. 가격은 1이집트 파운드(14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시내 광장에 취재하러 갔을 때 지하철을 탄 적이 있는데, 1파운드밖에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철 창문 유리는 아예 없고, 냉방시설도 없어 전철 안은 찜통입니다. 동양인이 저밖에 없어서인지 다들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혹시나 뒤에서 뽕 훔쳐 갈까봐 백팩을 앞으로 옮겨 매고 구석에 숨숙이며 동네에 빨리 도착하듯만 염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인지라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출국 전 주한이집트대사관에서 소개받은 이집트 최대신문사 ‘알 아람(Al Ahram·피라미드라는 뜻)’ 기자 새디는 처음 만나는 저를 정말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신문사 안내도 해주고 이집트 정세에 대해서도 설명해주

며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나 연락하라고 힘을 줬습니다. 시위현장에서 만난 영어 강사 무함마드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 강의를 해달라며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각오

동아미디어그룹 ‘1호 중동 단기특파원’이라 사명감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후배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1년 임기 동안의 목표입니다. 얼마 전 2박 3일 동안 터키 쿠데타 출장을 갔다가 카이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벌써 정이 들었나봅니다. 내년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면 이곳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잘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편집국 국제부 조동주

디지털 콘텐츠 잘 만드는 사내 막강 크리에이터들

‘서기자는 리뷰리뷰해’ 페이스북 도달자 수 216만 ‘개밥남’ 강아지 소재 ‘궁디캠’은 383만 명이 봐

동아미디어그룹의 젊은 기자와 PD, 편집자들이 만드는 모바일용 콘텐츠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편집국 산업부 서동일 기사는 신규 출시된 IT기기 사용 후기인 ‘서기자는 리뷰리뷰해’ 코너를 동아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연재하고 있다.

2월에 게시된 ‘LG G5 스마트폰 모듈 교체’ 영상은 무려 216만 명이 봤고 1만 3000여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공유 수도 1494개에 달했다.

당시 스페인에서 LG스마트폰 론칭 행사를 취재 중이던 서 기사는 현지에서 촬영한 영상을 행사 중간에 편집국 디지털 통합뉴스센터(디지털센터)로 보냈다. 디지털센터는 1시간 만에 편집해 바로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다. 비슷한 시각 다른 매체도 관련 기사를 썼지만, 대부분 보도 자료용 사진과 스펙을 담는데 그쳤다.

이 코너에 대한 온라인 독자들의 관심은 3월에도 이어졌다. ‘밀리터리 외장 하드’ 영상은 32만 명이, ‘갤럭시7 방수 기능 실험’ 영상은 23만 명이 봤다. 모바일 고객들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라온 동영상상을 계속 볼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

간은 3초 이내로 알려져 있다. 두 영상은 이 점을 노렸다. 영상 시작 5초 안에 임팩트 있는 장면을 보여주도록 편집한 것. ‘밀리터리’편에서는 외장하드를 청계천 벽에 집어 던지는 장면으로 시작했고, ‘갤럭시7 방수’편에선 최신 갤럭시 스마트폰을 물통에 빠뜨렸다.

채널A 제작본부의 임성용 PD는 예능 프로그램인 ‘개밥주는남자(개밥남)’에 출연하는 웰시코기 강아지 대·중·소의 귀여운 일상을 1-2분 분량 영상으로 만들어 ‘개밥남’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강아지들의 귀여운 영당이와 뒤태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궁디캠’ 시리즈는 2월 첫 선을 보인 이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2월 11일 게시된 궁디캠 1탄은 무려 383만 명이 동영상을 봤다.

후속으로 이어진 ‘까공캠’ ‘뽀뽀캠’ 등도 페이스북에 올라올 때마다 3만 건 안팎의 도달자 수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임 PD는 방송 촬영현장에서 틈날 때마다 핸드카메라로 강아지들을 따로 찍어 모바일용으로 편집한다.

이들 동영상은 정규방송 시청자 뿐 아니라 짧은 시간에 재미있는 강아지 영상을 즐기고 싶어하는 모바일 고객들을 끌



편집국 서동일 기사의 ‘리뷰리뷰해’ : 밀리터리 외장 하드편의 첫 장면. 서 기사가 청계천 벽을 향해 외장하드를 힘껏 던지고 있다(위). 채널A 임성용 PD가 ‘개밥남’ 강아지들의 귀여운 영당이를 소재로 만든 ‘궁디캠’의 한 장면.

어 모으고 있다. 2주마다 정기적으로 동영상상을 올리다보니 고정팬들도 생겼다. 셀프 카메라처럼 허술한 듯 자연스러운 구도에 신선한 인터넷 신조어가 자막으로 들어가 ‘2030’ 고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임 PD는 “SNS나 포털사이트에서 ‘궁디캠’을 본 사람들이 거꾸로 ‘개밥남’ 정규 방송을 찾아보는 것 같아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이승민

“소문 무성할 때 팩트 확인해 특종”

채널A 사건팀, 낙종 뒤집어 박유천 피소 사건 일단 단독

‘박유천 성폭행 피소’ 사실이 알려진 뒤 밤중에 걸려온 당시 캡(박진우 기자)의 한마디는 내 폐부를 후벼 판다. “너 이거 몰랐나?” 특종은 이렇게 낙종에서 시작됐다.

다음날 일찍부터 강남경찰서를 헤집었지만 새 팩트 발굴은 쉽지 않았다. 성(性)관련 사건 특성상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죽으면 법은 없나 보다. 속이 상해 흡연실을 찾았을 때 만난 한 경찰이 구세주가 됐다.

그 경찰은 “그 여자, 수상해”라는 한 마디를 톡 내뱉었다. 경찰이 고소인을 ‘수상하다’고 특정했다면... 결정적 단초임을 직감했다.

취재는 조금씩 활기를 찾았다. 박유천 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기 전,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성폭행’ 당했다던 1차 고소인 측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박 씨 소속사에 ‘협상’을 요구했고, 소속사는 이 사실을 고소장이 접수되기 이틀 전 경찰에 전했다는 것이다.

성폭행 고소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날에는 박 씨 소속사 측에서 경찰과 만나 ‘꽃병’ 일당 체포 작전’까지 논의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자 후속 취재는 물살을 탔다. 꽃병이라고 하니 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1차 고소인 측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중국에 가서 살게 해 달라. 10억 원이 안 되면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낙종이 특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박 씨가 맞고소를 하는 날 ‘박유천이 10억 협박당했다’는 채널A의 단독기사가 방송을 탔다.

채널A의 보도로 ‘화장실 변태’로 몰렸던 박 씨에 대한 동정 여론이 조금 되살아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 씨에게 불리한 정황을 채널A가 다시 특종하면서 여론은 요동쳤다.

박 씨 소속사가 1차 고소인 측에 1억 5000만 원을 건네며 ‘고소 취소와 무고 맞고소’를 조건으로 달았다는 ‘이면합의’ 의혹을 보도한 것. 경찰은 박유천 씨 사건을 검찰에 모두 송치했지만 ‘이면합의’에 대해서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종으로 우뚝했던 것도 일순간. 또 다시 처참한 낙종 소식이 들렸다. 이번엔 영화배우 이진욱 씨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오호통재라!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똑바로 중심 잡고 다시 뛰어라. 보도본부 사회부 김기정

전국 누비며 심층 취재... 활력·깊이 다 잡는 정책사회부가 떴다!

보도본부 정책사회부 신설 전국 사건사고-심층보도 주력

2016년 6월 27일 채널A 보도본부에 '고퀄리티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부서가 등장했으니. 그 이름은 정책사회부! 동아일보 광화문 미디어센터 10층에 '정책사회부' 뜻밖은 걸려있는데 도대체 뭐하는 부서인지 궁금해 두리번거리기도 여러 번. 그래서 직접 '정책사회부'를 만나봤습니다.

'정책사회부' 넌 누구?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채널A 보도본부에 새로 합류한 '정책사회부'라고 합니다. 채널A 보도본부에 오랜 준비 끝에 출범시킨 정책사회부는 '방송 탐사보도'를 맡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보셨던 '탐사보도 프리미엄 리포트'에 방송이 결합돼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에 요원들이 포진해 있다면서요?

"김상수 부장을 감독으로 임도현, 이일주, 조영달 차장이 코치를 맡고 있고, 취재기자 7명과 지역 영상기자 9명이 전국을 누닙니다. 얼핏 보면 인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지경입니다. 지방에 사건이 터지면 서울에 있는 기자들이 곤장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한 예로, '부산, 제주, 전북 익산, 충북 청주, 강원 정선...' 팀 막내 박지혜

기자가 정책사회부 출범 이후 다녀온 취재지역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역 영상 기자들도 가장 뜨겁고 생생한 현장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 위해 늘 뛰어다닙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브랜드가 있다고?

"채널A 종합뉴스에 신설코너로 마련된 '콕콕 카메라'와 'THE 깊은 뉴스'예요. 콕콕 카메라는 생활 밀착형 아이টে็ม을 주로 다룹니다. 생동감 있는 영상과 획기적인 스탠드 업을 보여줄 겁니다. THE 깊은 뉴스는 고발, 심층 기획 중심의 깊이 있는 탐사 보도입니다."

이름은 누가 지었나?

"자체적으로 이름 공모전을 했습니다. '콕콕'은 백미선 기자, 'THE 깊은'은 임도현 차장 아이디어입니다. 상품은 '큰박수'였습니다."

정책사회부 리포트의 특징은?

"우선 리포트 하나의 방송 분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 방송 리포트가 1분30초 안팎이었다면 정책사회부 리포트는 4-5분이 기본입니다. 그만큼 취재도 많이 해야 하고, 영상도 더 많이 담아야 합니다. 또 영상 편집에 평균 6-7시간이 걸릴 정도로 정성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출입처가 어디예요?

"보건복지부, 환경부를 비롯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출입처입니다. 지방 사건사고도 정책사회부 몫이고요. 하



신설된 채널A 보도본부 정책사회부 부원들이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10층 사무실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재명기자 base@donga.com

지만 실상은 그냥 '다' 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곳이 출입처인 셈이죠. 거의 '맨땅에 헤딩'입니다."

스탠드 업 경쟁이 붙었다는 소문이?

"예. 우리 부서 막내들인 김지환, 최주현, 박지혜 기자 사이에 소리 없는 '스탠드 업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평범한 스탠드 업은 본인들이 일단 거부합니다."

앞고 서고 뛰고 걷고 난리도 아닙니다. 기발한 스탠드 업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하루 종일 스탠드 업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 부장의 의욕이 대단하다고?

"첫 회의 때가 기억납니다. 폴리처상을 받은 '보스틴 글로브' 신문의 탐사보도 팀을 다룬 영화 '스포트라이트' 이야기

를 하시더군요. 우리도 그런 팀이 돼 보자고 하시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콕콕 카메라'와 'THE 깊은 뉴스' 정말 많은 품이 들어가고 노력과 열정이 묻어 있는 코너입니다. 본방송수 부탁드리며 채널A의 핵심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보도본부 정책사회부 변중국

아빠들의 진심이 시청자의 마음 움직였다

채널A 새 예능 '아빠본색' 첫 방송 시청률 4% 넘어 포털 동영상 조회는 260만 건

방송인 김구라 등 스타급 출연진으로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채널A 예능프로그램 '아빠본색'이 7월 6일 첫 방송에서 4.058% 시청률(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을 기록했다. 채널A 프로그램 첫 방송 가운데 가장 높은 시청률이다.

'아빠본색'은 이날 동시간대 종합편성 채널 1위를 차지했으며 분당 최고 시청률이 7.023%까지 치솟았다. 특히 20대 여성 시청률은 1.385%로 동시간대 방송한 MBC 드라마 '운빨로맨스'의 시청률(1.327%)보다 높아 "20대 여성을 저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빠본색'은 6일 방송 도중 포털사이트 다음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잡는데 성공했다. 출연자인 김구라, 이창훈, 김영호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포털 동영상의 조회수는 260만 건을 넘어섰다.

'아빠본색'은 밖에서는 당당하지만 자식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아빠들의 진면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관찰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다.

6일 방송 첫 주인공으로 등장한 김구라에게선 독설가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었다. 아들만 바라보고 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아빠 김구라'의 모습이 방송 사상 최초로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김구라가 이혼 후 속상함을 토로하자 아들 동현은 "엄마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얘기해"라고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엄마는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 대목에선 진잔한 감동을 줬다.

'혼남 톱스타'에서 '시골 아빠'로 변신한 이창훈은 아토피가 심한 초등학생 딸의 치료를 위해 시골로 이사한 뒤 3년째



7월 6일 첫 방송된 '아빠본색'에서 개그맨 김구라와 아들 김동현이 이혼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농사일과 집안일에 매진하고 있다. 가족과 떨어진 채 오랜 촬영 스케줄을 소화할 수 없어 캐스팅 제의를 줄줄이 고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연들도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제작본부 박경식 PD는 "아빠들의 '잔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과 주부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동현이의 입장을 공감하는 20대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전략실 브랜드마케팅팀 오지현



7월 11일부터 '풍문으로 들었소' 새 MC로 합류한 최여진(오른쪽)이 남자MC 이상민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산뜻해진 '풍문쇼' 새MC 최여진, 광정은 스테파니 김지민 패널 합류

유명인들의 숨겨진 일상을 파헤치는 채널A의 신개념 '셀럽' 밀착 토크쇼 '풍문으로 들었소(풍문쇼)'가 7월 4일 새로운 MC와 패널들로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가수 흥진영에 이은 '풍문쇼'의 새 MC는 모델이자 배우로 활동해온 최여진. 그는 남자MC 이상민과 첫 방송부터 환상의

호흡을 선보이며 매끄러운 진행을 이어갔다. 출연자들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모델 워킹을 선보이고 "몸매를 보여주려 속옷 화보를 찍는다"는 자신에 대한 풍문까지 속 시원히 설명하며 예능감을 뽐냈다.

새로운 패널들도 눈길을 끌고있다. 가수 스테파니와 작가 겸 방송인 광정은,

개그맨 김지민이 4일 방송부터 패널에 합류한 것. 채널A 제작본부 김경훈 PD는 "최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는 패널들이 합류해 풍문쇼가 더욱 다채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전략실 브랜드마케팅팀 이선정

방송말 바꾸기

아휴, 깜짝 놀랐잖아(X)
아휴, 깜짝 놀랐잖아(O)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놀래켜 주면 어떨까?"

여기서 '놀래키다'는 '놀래다'의 충청도 방언이며 아직 표준어가 아니다. 위의 문장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놀래 주면 어떨까"로 바뀌야 바르다.

"네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이 문장은 바른 표현일까? 아니다. "네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라고 해야 한다.

"뭇밖의 일을 당해 가슴이 설레다, 갑자기 무서운 것을 보고 겁을 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은 '놀라다'이다.

'놀래다'는 '놀라다'의 사동사로, 남을 놀라게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박태환은 신기록으로 세계 수영계를 놀래켰다'는 '박태환은 신기록으로 세계 수영계를 놀렸다' 또는 '박태환은 신기록으로 세계 수영계를 놀라게 했다'로 써야 한다.

'세계 수영계는 박태환에게 놀렸다'는 '세계 수영계는 박태환에게 놀랐다'로 바꾸어야 한다.

심익실 심익림 김용길